

광복 51주년 특집

사찰조경에 식민잔재 '그대로'

日 수종 삼나무·편백등 식재... 둥근돌 층계도 왜색

아직도 국내사찰에 일본식 조경이 비판없이 시공되고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재부분.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이경재교수는 "자연생태계와 건축물이 만나는 공간을 추이대(推移帶)라 하며 이곳에는 각종 곤충과 양서·파충류가 서식하여 수도하는 스님들이 곤경에 빠질수 있다"며 "전통적으로 사찰내부에는 큰 나무를 식재하지 않았으나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일본 전통수종인 삼나무 편백 금송 등을 무질서하게 식재하여 우리 전통사찰인지 일본본산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교수는 "일본인들의 의도를 알지못한 채 아직도 일본수종을 사찰경내에서 기념식수하거나 사찰조경을 한다며 무질서하게 나무를 심는 경우가 있다"며 "전통사찰 경관복원차원에서 신중하게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찰경내에 나무가 있으면 곤충이 서식하게 되어 스님들의 수행에 지장을 준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법당앞에 나무를 심지 않았으나 일제강점기때 일본인에 의해 사찰조경이 변질되었다.

돌쌓기도 전통적인 방식보다 일본식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통적인 돌쌓기는 큰돌을 겹쳐서 수직이 되도록 하는데 반해 일본식은 둥근돌

이준엽 기자



◇담장이 그린 일본 나라 법통사 금당의 벽화 '아미타정토'.

법통사 금당벽화 담장그림 "일본은 다시 인정하라"

1924년 이후 일본 교과서에는 법통사 금당벽화를 그린 고구려 화가 담장스님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1992년 출간된 '일본어대사전'도 나라시대의 고승인 행기스님이 백제인 왕인박사의 후손이란 역사적 사실을 기록에서 빠뜨렸듯이(본지 88호 6면 참조) 광복후 반세기 가 지난 오늘날에도 일본의 리도적인 역사왜곡이 여전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윤기박사(작가·82)는 최근의 사료 조사 결과, 세계적인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법통사 '아미타 정토'를 그린 담장스님의 경우 1924년까지는 일본 국민학교 교과서에 '담장이 종이·먹 등을 전채 주고 법통사 벽화를 그렸다'고 소개되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이름조차 삭제되어 있다고 밝혔다.

담장이 고구려인이며 법통사 벽화를 그렸다는 사실이 '일본사사전' <광사원(廣辭苑)> '일본어대사전' 등에 대동소이하게 기록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의 저자의 의도적인 역사 왜곡으로 비추어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교과서를 통해 법통사 금당벽

1924년 이후 교과서서 삭제

화의 주인이 담장이란 사실을 인식처럼 알고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 홍박사는 또 '일본 종교학과 역사교과서에 화보로 실린 일본의 국보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문화재이거나 한국인이 일본에 건너가 만든 것들인데도 '한국'이라는 국적 표시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재>

8·15 기념강연 초록

만해선사의 사상적 실체는 오늘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시대를 열어야 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상의 민족지향성·민중지향성은 오늘날 우리 역사의 두 바퀴임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만해의 여러 모습들, 혁신적 선승이면서 매서는 지조의 독립지사요, 영원 불멸한 '님의 침묵'을 저술한 사인중 어느것이 가장 만해다운 것인가 하는 점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의 사상에는 그 모두를 하나로 묶는 축이 놓여 있다. 우리가 만해를 논하고 기리

는 함축은 그 사상의 원류를 오늘에 계승하여 실천하자는데 있기 때문이다.

만해사상의 핵심적 원류는 <불교유신론>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그의 첫번째 저작이면서 동시에 '불교의 유신'은 파괴로부터 라는 과격한 선언으로 더 유명한 이것은 그 사상적 토대가 부정정신과 비판의식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그가 <불교대전>을 편찬하는 등 불교대중화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전국사찰을 순례하며 필기대회를 개최하여 한일불교동맹조약 체결의 음모를 분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실, 당대에 주목받던 <유심>지발간등의 활동은 모두 <불교유신론>의 실천적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듯 철저한 부정정신은 이미

그의 불교운동 자체가 독립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3·1운동으로 꽃을 피운 그의 독립운동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1925년 음력 8월29일 새벽 '님의 침묵'이 탈고됨으로써 만해선사는 일제치하를 넘어버린 시대, 침묵의 시대로 파악하여 그러한 절망과 고통을 통해서 마침내 만남과 광복을 성취한다는 영원한 철학적 진리와 종교적 믿음 그리고 문학적 희망을 시로서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혹독한 공립속에서도 전혀 지조를 잃지않고 의연히 살다가신

님의 모습은 그러나 그 인간적 면모를 훨씬 뛰어넘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국민시인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랴.

서구의 여러나라에 다 있는 국민시인 한사람을 우리가 갖게되는 것은 요즈음처럼 인과 밖의 거센 시련과 민족주체성이 위기에 봉착한 시대에 있어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만해스님을 민족의 시인으로 뜨겁게 가슴에 품고 범국민적으로 기림으로써 그 높은 사상을 생활철학으로 삼는다면 통일의 길도 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김재홍 <경희대국문과 교수>

이 내용은 8월15일 서울 구릉사에서 개최되는 8·15기념 특별강연의 요약이다. <편집자>



"일심으로 정념은 극락세계라..."

징을 치며 시작되는 회심곡의 노래자락을 농칠새라 경청하는 사람들, 더러 어깨를 들썩이고 박수를 치며 추임새도 넣어주는 촌로(村老)들은 언제나 정겨웠다. 그런 날이면 스님들도 공부를 슬쩍 밀쳐두고 마당가에 나와서 우리의 공연을 지켜보곤 했다. 회심곡 한바탕이 끝나고 경기만이나 서도소리 몇곡지를 부르고 나면 분위기는 그야말로 흥취가 넘치는 잔치판이 되었다. 그 뜰 기분을 탐돌이로 옮겨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단원들은 이미 준비해 둔 연등에 불을 밝혀두고 탐을 들고, 나는 스님들이 지켜보는 것도 아랑곳 않고 징을 치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도세도세 탐을 도세 백팔 바퀴 탐을 도세...'를 읊어댔다.

군대서나 쓰는 12블트짜리 확성기 하나를 의지해 퍼져 나가는 탐돌이 가락은 온 산사를 뒤덮었고 구경하던 사람들도 절에서 준비한 등을 하나씩 받아들이고 단원들의

김백국 <출판인>



참 했었는데 그 길이 내게는 목수를 그만두는 서울행이었다. 김천홍 선생을 만나 탐돌을 배웠고 이은관 선생의 학원을 찾아가 서도소리를 배웠다. 그리고 민속민담이란걸 고안해 소리와 재담을 하다보니 방송국에서 성우로 일하는 기회도 얻었다. 호곡음향이 없던 때여서 연속극 같은 것을 녹음하는데 호곡음을 넣기도 했다. 입으로 목탁소리도 내고 바람소리 짐승소리도 내며 호곡음향을 넣었던 것인데 그중 빠꾸기 소리를 일품으로 한다하여 아예 이름이 '김백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운학스님과 운문 스님을 만난 것이 내게는 절집을 방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스님들의 권고로 만든 단체가 '불교예술단'이

불교예술단 결성 전국 사찰 공연

"북통들고 찾아간 부처님 언제나 의욕 북돋워"

뒤를 따랐다. 탐도는 원이 점점 커지고 그럴수록 신명만 커져만 갔다. 밤이 깊어지기 전에 공연을 끝내야 하는 것이 언제나 아쉬웠다. 구경꾼들이 돌아오고 마당을 정리한 후 단원들은 각각 방으로 들어갔지만 나는 밤늦은 법당으로 갔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공연을 했으니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여쭙어야 하는 것이었다.



었다. 절에서도 먹을 것이 풍족치 못한 때라 그리 후한 대접이란 기대도 못했다. 그저 쫓겨나지 않는 것이 다 행이었는데 거기 는 운학스님의 소개서와 공연한 절의 주지스님이 써 주는 소개서가 큰 힘이 되었다. 낮에 차를 놓쳐서 종일을 걸어 밤늦게 도착한 법주사는

공생을 못 갖는다. 자정무렵의 산사에서 스님들이 애호박을 따다 넣고 끓인 국수를 내 주었는데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북통을 등에 지고 걸어 걸어 찾아 다녔던 전국 교향들. 허기를 감싸주고 찾아간 절의 대웅전에서 만나는 부처님들은 언제나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었다. 불교예술단을 해체하고도 박동진 이은관 장소팔 안비취 등 명인들과 어울려 절을 다니며 공연할 기회는 많았다. 그럴때마다 남몰래 법당에 들어가 나는 그 자비로운 미소를 대하고 기쁨을 얻었다.

소리꾼이란 신분으로 이리저리 휩쓸리며 배고픈 삶을 살아야 했지만 젊은 시절 부러울 것 없이 떠돌며 만난 여러 부처님들의 자애로운 미소를 생각하며 나는 오늘날까지 즐겁게 살아 올 수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백통을 등에 지고 걸어 걸어 찾아 다녔던 전국 교향들. 허기를 감싸주고 찾아간 절의 대웅전에서 만나는 부처님들은 언제나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었다. 불교예술단을 해체하고도 박동진 이은관 장소팔 안비취 등 명인들과 어울려 절을 다니며 공연할 기회는 많았다. 그럴때마다 남몰래 법당에 들어가 나는 그 자비로운 미소를 대하고 기쁨을 얻었다.

소리꾼이란 신분으로 이리저리 휩쓸리며 배고픈 삶을 살아야 했지만 젊은 시절 부러울 것 없이 떠돌며 만난 여러 부처님들의 자애로운 미소를 생각하며 나는 오늘날까지 즐겁게 살아 올 수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백통을 등에 지고 걸어 걸어 찾아 다녔던 전국 교향들. 허기를 감싸주고 찾아간 절의 대웅전에서 만나는 부처님들은 언제나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었다. 불교예술단을 해체하고도 박동진 이은관 장소팔 안비취 등 명인들과 어울려 절을 다니며 공연할 기회는 많았다. 그럴때마다 남몰래 법당에 들어가 나는 그 자비로운 미소를 대하고 기쁨을 얻었다.

사찰의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란분절 범회 · 칠석법회 설법자료 및 범보시 책자 보급 안내 ①

우란분제의 연원, 우란분제의 의미, 우란분제에 얽힌 이야기, 칠월 칠석의 유래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우란분절 범회, 칠석법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범회 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칠월칠석과 우란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범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제1부 발원문 1. 우란분절 발원문 2. 우란분절 범회범회 석문 제2부 우란분제에 얽힌 이야기 1. 나뭇의 줄기 2. 어머니를 찾아 지옥으로 간 목련존자 3. 우란분제를 읊다 4. 부처님께서 우란분제를 배틀라 하신 집뜻은? 제3부 우란분제의 연원, 우란분제의 의미, 우란분제에 얽힌 이야기, 칠월 칠석의 유래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우란분절 범회, 칠석법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범회 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칠월칠석과 우란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범보시가 될 것입니다.	제2부 믿음의 근본, 효:우란분제 1. 우란분제의 연원 2. 우란분제란 3. 우란분제의 의미 4. 우란분절과 범회 제4부 칠월칠석 1. 칠석의 유래 2. 수행장수를 기원하는 칠석재 3. 칠월칠석 전인과 부처
--	---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 200원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리고, 범회안내, 범보시자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범보시 가격/1권당 1,300원
- 크기/신국판(15.2cm x 22.3cm) 72페이지
- 맨 뒷장에 범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 미리 접수 바랍니다.

[온라인 번호]
 농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체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불자의 집」 교패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 크기 6cm x 7.5cm

특징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2.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3. 반영구적입니다.

※ 3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긍지를 갖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감로기획에서는 범보신문, 현대불교신문의 후원으로 「불자의 집」 교패 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불자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차량용도 있습니다. (유리후면에 부착)

- 보급방법 : ● 신도님이 사찰에 보시하시면 좋습니다. ● 사찰, 불교 단체에 보급합니다.
- 보급가 : 1개당 1,000원



▲ 크기 3.5cm x 10.5cm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 738-8682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